

<성경칼럼 요한복음 다섯번째 : 왜 니고데모 다음 수가성 여인일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한다.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 온 니고데모나 정오 대낮에 예수님이 찾아 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엄청난 사건도,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도, 무덤속의 나사로도 요한만이다. 왜 그럴까? 요한의 목적은 다른 복음서와 분명 다르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의 고난을 치른 후에 기록됐으니 아마도 다르게 증언했어야 했을거다.

이미 앞에 글에서 언급했듯이 니고데모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당대에 모두가 부러워 할수 있는 위치의 우월한 삶을 살았다. (요한 3:1)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대조적으로 비 정상적이고 불안정한 열등한 삶을 살았다. (요한 4:18) 이 두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권력의 중심의 삶과 변두리 삶의 차이일까? 도덕과 부도덕의 차이요 윤리와 비윤리의 차이일까? 아니면 고상함과 천박함의 차이일까? 혹은 정통과 혼잡과 무질서의 차이일까? 더 넓게 생각해서 남녀의 차이요, 부와 가난의 차이요, 유대인과 비 유대인의 차이는 아닐까?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모두 예정된 삶이었고 둘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크게 보면 예정되었다는 것은 사건과 시간의 문제이지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에 관계된 문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 온 것도 예정된 사건이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로 질러 야곱의 우물가에 가신 것도 예정된 사건이다. 하나님은 예정된 사건과 시간속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다. 아무리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완벽한 삶을 살아도 혹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허술한 삶을 살아도 삶은 어느 것이든지 예정된 것이고 그 삶속에서 사람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영혼의 문제에서 구원이 필요한 결핍자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한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갔고 다른 한사람은 하나님이 찾아 가셨다는 것이다. 하나님

을 찾아 가든지 하나님이 찾아 오시든지 둘중 더 나은 것은 없다. (신학자는 하나님이 찾아 오신 것에 더 가치를 두기도 하지만 말이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아 가야 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 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찾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생동안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먼저 개입하시고 끼어 드신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아 가야 할 사람은 일생동안 하나님이 그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그의 삶을 지켜 보신다. 하나님을 찾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일생이 걸리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면 한순간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영은 양쪽 모두에게 공정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 각자의 삶의 형편과 시간에 달려 있다. 당신은 어떤가? 때로는 하나님을 방황하며 찾아가는가? 아니면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 와 주시는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두사람을 연이어 대조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자신안에 두사람을 모두를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이기도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세상에 말해 주고 싶었을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난 찾아가는 니고데모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완전하고 허술한 수가성 여인이기도 하다. 당신은 어떤가? 다시 꼼꼼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멘!